

KMI 북방물류 리포트

VOL.99
AUG 14 2019

발간년월 2019년 8월 14일 (통권 제99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FESCO·RZD, 한국-유럽 간 해륙복합 시범운송 개시
- 롯데, 아무르주 영농사업 타진...극동 신시장 진출 가속화
- 연해주 냉동저장을 위한 복합단지 완공
- 러시아, 에스토니아와 교통·물류 협력 강화 추진
- 제1회 카스피안 경제 포럼 개최...연안 5개국 다양한 의제 발표
- 중앙아연구소

주요 통계

-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FESCO·RZD, 한국-유럽 간 해륙복합 시범운송 개시

■ 러시아 Russian Railways Logistics(RZD)와 FESCO는 공동으로 극동아시아와 유럽 간 철도를 이용한 해륙복합운송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하고 있음

- 해당 운송루트는 Trans-Siberian LandBridg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올해 5월 요코하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Trans-Siberian railway)를 이용한 시범 운송사업을 개시한 바 있음
- 최근 동일한 형태의 운송루트를 통해 한국발 서비스도 개시하였으며, 이는 지난 6월 25일 부산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TSR로 환적되어 벨로루스의 브레스트(Brest)를 거쳐 폴란드 브르제그 돌니(Brzeg Dolny)까지 철도로 운송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도로운송을 통해 최종 화주에게 배송됨

■ Trans-Siberian LandBridge는 기존 해상운송보다 약 2배 이상의 운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기대됨

- 요코하마항에서 TSR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루트는 약 26일이 소요되는 해상운송 대비 전체 19일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그 중 철도로 운송되는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브레스트까지는 11일이 소요됨
- 향후 자동차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화물이 한국에서 TSR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될 예정에 있음
- 환적화물의 공동 운송을 통해 FESCO는 해상운송 및 항만환적, 도로운송 등을 주관하고, RZD는 철도운송을 담당함

■ RZD 관계자는 해당 시범운송을 통해 TSR을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와 유럽 간 해륙복합운송에 가시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운송루트 옵션을 개발 할 것이라고 언급함

참고자료

a) Handy Shipping Guide (2019.8.11. 검색)

롯데, 아무르주 영농사업 타진...극동 신시장 진출 가속화

■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영농기업이 아무르 대두 및 곡물 생산업자들과 만나 향후 투자협력에 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아무르주 정부는 지역을 방문한 롯데 대표진과 면담을 갖고 아무르 농산물 수출잠재력을 소개함
- 주정부 관계자는 아무르주의 경작지 면적은 150만 헥타르 규모로 극동 전체 경작지 면적의 50%이상 수준으로 가장 많다고 강조함

■ 당국 관계자는 아무르산 농산물의 주요 장점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가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함

- 러시아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르 지역은 자체 생산 농산물이 친환경적임을 보증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역설함
- 아무르주는 러시아 전체 대두 생산량의 30% 이상을 담당하며 이외에도 여타 곡물들을 선도적으로 생산하는 등 러시아 영농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임
- 현재 아무르주는 농업 관련 수치로 러시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주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2024년까지 곡물 생산량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임

■ 롯데 측은 이미 연해주에 총 1만 헥타르 면적 규모의 영농사업을 펼치는 등 이미 극동지역에서의 사업경험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을 긴밀히 검토한 끝에 아무르 주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 롯데 대표단은 대두작물 외에도 아무르산 옥수수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함
- 아무르 지역에서 2년 간 약 30~40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3백만 톤 규모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한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와 중국 헤이룽장성 헤이허를 잇는 세계 최초의 국제 케이블카 프로젝트 개발기업인 제드 디벨롭먼트(ZED Development)와도 롯데와의 협력의사를 밝힘

- ZED Development는 롯데호텔 체인망을 잘 알고 있다며 아무르블라고베센스크 지역에 유

치할 호텔 브랜드를 찾고있다고 하며 협력 가능성을 내비침

- 롯데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블라디보스톡의 5성급 대형호텔을 인수했으며 현재 극동지역에 추가 호텔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함
- 한편 롯데 대표단은 벨로그르스크의 우수 농업용지와 관련 장비들을 살펴보고 현지 관계자로부터 경작방법을 소개받기도 함
- 현재 롯데는 지난 14년간 러시아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러시아 최대 투자 한국기업이기도 함

전명수 현지리포터 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참고자료

a) <https://www.amur.info/news/2019/08/08/158179>(2019.8.9. 검색)

연해주 냉동저장을 위한 복합단지 완공

■ ‘아이스베르그 로지스틱스’사는 연해주에 생산 및 냉동저장을 위한 복합단지를 건설 완료함

- 본 프로젝트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활동 중 하나로 건설비용은 약 5,700만루블이며 21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복합저장단지는 약 3,000㎡로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함

그림 1. ‘아이스베르그 로지스틱스’ 창고 외관(상) 및 내부(하)



■ 스타니스라브 윤 대표는 복합단지 인근지역에는 도로 등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시설이 개발되어 있어 복합단지로 접근이 용이하며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 및 냉동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번에 건설된 복합저장단지는 완제품 및 반제품 식품을 저장 할 수 있으며 세관검사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음

김은미 현지리포터 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minvr.ru/press-center/news/23105/>(2019.8.12. 검색)

러시아, 에스토니아와 교통·물류 협력 강화 추진

■ 에스토니아 경제부 장관이 2019년 6월 5~8일간 개최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 교통·물류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양국은 교통 협력 강화에 대해 합의했음
- 7월에 재개된 도로교통위원회에서 양측은 도로교통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로교통량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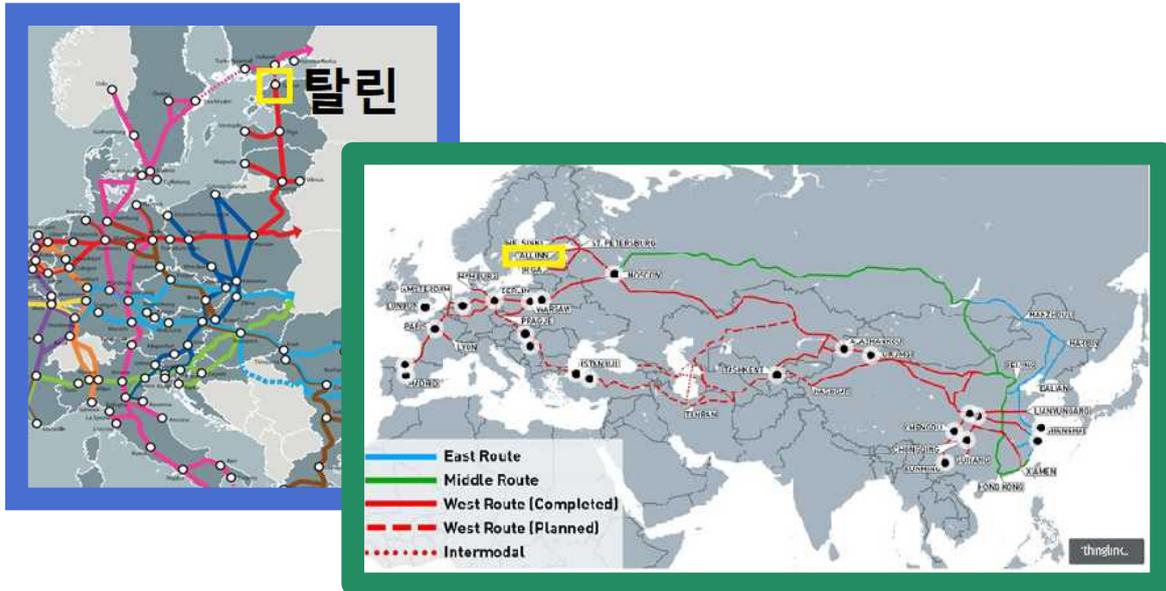
■ 에스토니아는 2000년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경험하면서 교통·물류 부문을 중심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음

- 2007년 에스토니아에 설치된 소련 청동군인동상이 철거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를 거치는 러시아 철도화물수송량이 약 40% 줄은 바 있음
- 러시아에 대한 서방제재가 가해지면서 발트국가는 연간 약 5.1억 유로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에스토니아가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음
- 2015년 에스토니아의 화물수송량이 20% 감소했음

■ 양국간 교통·물류 협력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아시아-유럽 교통로 구상을 실현시키고 에스토니아에는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이자 러시아의 아시아-유럽 교통로 구상 실현 차원에서 양국간 철도화물수송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는 새로운 컨테이너 수송 루트가 중국 옌타이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 지역의 셸란티노 까지 이어져 있는데, 국제협력 성과에 따라 동쪽으로는 대만, 베트남, 한국, 일본까지 서쪽으로는 북유럽을 거쳐 중동부 유럽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 에스토니아와 러시아간 교통·물류 협력이 지속된다면, 에스토니아는 아시아-유럽 교통로 서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아시아-유럽 교통로와 EU철도에서 에스토니아 탈린 위치



민지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misjee@hanmail.net)

참고자료

- <https://ee.sputniknews.ru/economy/20190711/17124846/Estoniya-i-Rossiya-dogovorilis-dru-zhit-avtotransportom--podrobnosti.html>(2019.8.10. 검색)
- <https://svpressa.ru/economy/article/238580/>(2019.8.10. 검색)
- <https://ee.sputniknews.ru/economy/20190723/17300387/V-Estonii-mogut-poyavitsya-novye-tranzitnye-marshruty-dlya-gruzov-Aziya-Evropa.html>(2019.8.10. 검색)
- <https://www.silkroadbriefing.com/news/2017/07/20/china-eyes-estonia-smartest-nearest-port-eu-access/>(2019.8.10. 검색)

제1회 카스피안 경제 포럼 개최…연안 5개국 다양한 의제 발표

■ 제1회 ‘카스피안 경제 포럼(Caspian Economic Forum)’이 8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크멘바시(Türkmenbaşy)에서 개최되었음

- 행사는 튀르크멘바시 시내 아바자(Avaza) 국립 관광 특구에서 진행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와 외무장관이 이끄는 조직위원회가 행사 진행 및 기술지원을 담당했음
- 경제 포럼의 주요 안건은 연안국들 간의 무역 및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 실행, 석유가스, 전기, 농업, 관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등이었으며, 그 외에도 국제 경제적 맥락에서의 카스피 해 경제권의 역할 및 투자유치 방안 또한 논의되었음
- 연안국 각국의 대표단은 공직자 외에도 은행 및 사업자 대표단, 그리고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음. 이에 따라 포럼의 일환으로 카스피안 혁신기술박람회와 참가국 비즈니스 대표단 회의 또한 진행되었음

그림 1. 제1회 카스피안 경제포럼



■ 포럼에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w) 투르크멘 대통령과 연안 5개국 총리급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우즈베키스탄과 불가리아 총리 또한 방문했음

- 에스하크 자한기리(Eshaq Jahangiri) 이란 부통령은 “연안국들 간의 무역 관계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해역의 이해 당사국들은 공동의 경제 발전을 위해 관세 등의 비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는 폐회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카스피 해 특별 지위에 관한 합의>에 관한 의회의 비준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총리는 연안 5개국의 경제 및 환경 문제와 더불어 테러리즘, 마약유통, 조직범죄 등 안보 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denizxeber.az/2019/08/12/avazda-x%C9%99z%C9%99rd%C9%99-ticari-iqtisadi-%C9%99m%C9%99kdasliq-haqqinda-sazis-imzalanilib/>(2019.8.14. 검색)
- b) <https://denizxeber.az/2019/08/12/irandan-t%C9%99klif-x%C9%99z%C9%99rd%C9%99-ticar%C9%99t-tarifl%C9%99rini-azaldaq/>(2019.8.14. 검색)
- c) <https://denizxeber.az/2019/08/13/rusiya-x%C9%99z%C9%99rin-huquqi-statusu-uzr%C9%99-konvensiyanin-ratifikasiyasini-tezlikl%C9%99-basa-catdiracaq/>(2019.8.14. 검색)
- d) <https://denizxeber.az/2019/08/10/sabah-turkm%C9%99nistanda-birinci-x%C9%99z%C9%99r-iqtisadi-forumu-keciril%C9%99c%C9%99k/>(2019.8.14. 검색)



주요 통계



표 1.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66.46 (+8.6%)	38.49 (+3.9%)	104.95	+6.8%
북극해	14.91 (+5.5%)	36.74 (+35.3%)	51.65	+25.1%
발트해	55.5 (+2.6%)	74.56 (+8.8%)	130.06	+6.1%
아조프-흑해	41.57 (-28.3%)	77.32 (+2.7%)	118.89	-10.8%
카스피해	1.28 (-7.6%)	2.21(+213.3%)	3.48	+44.1%
합계	179.71(-4.8%)	229.33(+9.7%)	409.04	+2.8%

* 주: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오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캐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베크,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1,894,027.1	549,430.1	6,927.6	5,640.4	1,900,954.7	555,070.6
광물 제품	9,189,168.2	62,701.8	138,617.0	94,535.3	9,327,785.2	157,237.2
연료 및 에너지 제품	8,867,147.4	56,351.3	483.1	33.9	8,867,630.5	56,385.2
생고무 및 화학 제품	27,526.8	331,694.4	1,919.6	4,185.8	29,446.4	335,880.2
가죽원료, 모피 제품	599.7	7,715.8	36.5	167.5	636.2	7,883.3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567,579.2	44,917.7	2,390.0	678.7	569,969.2	45,596.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496.3	132,123.1	482.1	3,016.6	1,978.4	135,139.8
금속 및 금속 제품	272,474.6	317,769.4	544.9	6,158.9	273,019.5	323,928.2
기계류	559,665.1	2,028,913.8	6,254.8	6,418.5	565,919.9	2,035,332.4
기타	1,728,789.7	248,769.1	76,843.2	1,062.8	1,805,632.9	249,831.9
합계	14,241,326.7	3,724,035.3	234,015.8	121,864.6	14,475,342.4	3,845,899.9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0	0	13	98.0	-	-	-	-	0	0	13	98.0
냉동어	715,032	1,043,003.7	20,692	34,765.9	178	447.4	-	-	715,210	1,043,451.1	20,692	34,765.9
연어류	38,100	81,936.5	-	-	25	72.7	-	-	38,125	82,009.2	-	-
넙치	2,279	11,422.9	-	-	-	-	-	-	2,279	11,422.9	-	-
가자미	7,210	10,578.0	-	-	-	-	-	-	7,210	10,578.0	-	-
가자미류	13,519	18,456.7	-	-	-	-	-	-	13,519	18,456.7	-	-
청어	76,095	45,168.8	-	-	153	347.7	-	-	76,248	45,543.5	-	-
대구	35,952	101,543.6	-	-	-	-	-	-	35,952	101,543.6	-	-
명태	478,954	578,049.4	-	-	-	-	-	-	478,954	578,049.4	-	-
농어	275	1,038.7	-	-	-	-	-	-	275	1,038.7	-	-
간, 곤이 (어란)	35,468	159,917.6	-	-	-	-	-	-	35,468	159,917.6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4,309	6,623.0	-	-	-	-	-	-	4,309	6,623.0	-	-
생선필렛, 어육	45,268	125,824.2	537	1,973.2	-	-	-	-	45,268	125,824.2	537	1,973.2
건어, 훈제, 염장, 어분	281	596.6	492	2,747.5	-	-	-	-	281	596.6	492	2,747.5
갑각류	31,191	456,548.0	166	1,003.8	-	-	-	-	31,191	456,548.0	166	1,003.8

계류	24,911	409,300.6	-	-	-	-	-	-	24,911	409,300.6	-	-
조개류	7,116	18,272.7	-	-	-	-	-	-	7,116	18,272.7	-	-
가리비류	3,599	6,880.7	-	-	-	-	-	-	3,599	6,880.7	-	-
오징어류, 문어류	1,981	3,417.9	221	1,259.3	-	-	-	-	1,981	3,417.9	221	1,259.3
수산무척추동물	5,412	16,465.7	-	-	0.4	20.3	-	-	5,412	16,486.0	-	-
해삼류	743	2,121.9	-	-	0.4	20.3	-	-	743	2,142.2	-	-
성게류	4,615	13,955.4	-	-	-	-	-	-	4,615	13,955.4	-	-

(단위: 천 톤, 달러)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detail.php?ID=79538&sphrase_id=1929165(2019.8.11. 검색)
- b)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19년 8월 11일)
- c)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19년 8월 11일)